

## 2011년도 제48회 변리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수험번호	성명
1교시	민사소송법	120분		

### 【 A-1 】 (30점)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에게 1억원의 대여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乙이 변제를 거부하자 보증인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乙은 丙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가하여, 주채무 1억원을 변제하였다고 변론에서 주장하였다. 한편 甲에 대하여 2억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丙이 이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항변을 하지 않자, 乙은 예비적으로 그 상계의 항변을 제기하였다. (아래 각 설문은 독립적임)

- (1) 법원은 乙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 (20점)
- (2) 법원은 주채무변제와 상계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여 甲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에 따라 丙은 甲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乙을 피고로 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은 주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甲의 丙에 대한 前訴判決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다룰 수 있는가? (10점)

### 【 A-2 】 (20점)

甲은 乙에 대하여 2008. 4. 1.을 변제기로 하는 1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乙이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은 2011. 3. 2.에 7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 각 설문은 독립적임)

- (1) 1심 소송계속 중 甲은 나머지 3억 원의 지급도 구하려고, 2011. 5. 3.에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 甲이 추가로 청구한 3억 원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乙이 주장하자, 이에 대해 甲은 7억원의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채권전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시효중단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10점)
- (2) 7억원의 공사대금지급청구에 대해서 1심법원은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甲이 10억원의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기 위해서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것은 적법한가? (10점)

【 B-1 】 (30점)

甲이 乙을 상대로 민사상의 청구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다. 甲 또는 乙은 소외 제3자 丙을 이 소송의 당사자로 추가 또는 교체하고자 한다. 어떠한 소송상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 B-2 】 (20점)

甲은 乙로부터 A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었다. 丙은 A부동산에 관한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하여 甲이 丙을 피고로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변론에서 丙은 甲과 乙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1) 매매계약체결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甲과 丙 중 누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가?  
(10점)
- (2) 매매계약체결사실의 존부에 대해 법원이 심증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0점)